

英美출판계가 거둔 1990년의 수확

「파이낸셜타임즈」 「비즈니스위크」지 선정 '올해의 책'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소련과 東歐의 개혁의 바람을 업고 전세계가 인류의 역사상 모처럼 화해의 무드가 무르익은 가운데 시작된 1990년은 그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이라는 반영화와 독일통일이라는 상반된 특징을 남기면서 마감됐다. 국내 정치면에 있어서도 韓·蘇수교, 남북총리회담 등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1990년은 우리 출판계에도 전국도서전시회 개최, 도서상품권 발행 허용 등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던 한해였다.

역시 다사다난했다고 표현될 수 있는 1990년 영국과 미국의 출판계는 어떠했을까. 영국의 권위지 「파이낸셜타임즈」의 서평담당자 32명이 각각 선정한 '올해의 책'(My book of the year)과 미국의 세계적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서평담당자 데니스 드몽(Denise Demong)이 뽑은 '90년 최고의 비즈니스 북'(The best business books of 1990)을 통해서 그들의 흐름을 정리해본다.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올해의 책'

▲옥스포드 카드게임 가이드(The Oxford Guide to Card Games)=기존의 게임규칙이나 조언을 싣고 있는 책과는 달리 각각의 카드게임이 담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교훈을 재미있게 풀이했다.(David Parlett 지음, 옥스포드판)

▲조지왕조시대의 도시생활(Life in the Georgian City)=18세기 영국 조지왕조시대 런던의 생활상을 건축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한 책.(Dan Cruickshank 지음, 바이킹판)

▲천사의 문(The Gate of Angels)=20세기 초 여자들의 입학이 금지돼 있던 캠브리지대학 물리학자와 남부런던지역의 가난한 견습간호원을 주인공으로 계급, 신념, 그리고 여성해방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풍부하고 잔잔하면서도 심금을 울리고 재미있게 표현해낸 소설.(P.Fitzgerald 지음, 콜린스판)

▲배고픔과 공공정책(Hunger and Public Action)=철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정책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나를 특별한 경제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 책.(J. Drèze 지음, 옥스포드판)

▲더 베스트 오브 오고늬(The best of Ogonyok)=정치적인 보도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소련인들의 일상생활, 즉 소시지, 자살

을, 낙태, 여성소비니즘, 모스크바 갱들의 전투 등 소련의 감춰진 이면을 소개하고 있다.(하이네만판)

▲머독-하나의 미스테리(Madoc-A My story)=탈레스로부터 스티븐 호킹까지 철학자·시인들이 꿈꾸는 세계가 실현됐을 경우를 현란한 문체와 정교한 구성으로 그려냈다.(P. Muldoon 지음, 파버 & 파버판)

▲나의 아들이야기(My Son's Story)=흥미진진한, 그러나 인종차별과 정치적 측면에 맞닥뜨린 한 인간의 미묘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소설.(N. Gordimer 지음, 브룸스버리판)

▲미숙한 부모(Green Parenting)=새로운 시각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설정, 아이들의 행위에 대한 의미부여와 부모들의 육아방법을 제시한 책.(J. Solomon 지음, 윗터마판)

▲사랑과 쓰레기(Love and Garbage)=체코 슬로바키아 출신 작가의 소설. 공산당 치하의 체코슬로바키아 분위기와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한 거리청소부의 삶을 그려냈다.(Ivan Klima 지음, 사토 & 윈루스판)

▲남아프리카의 정신(The Mind of South Africa)=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저널리스트한 입장에서 접근, 균형잡힌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A. 스파크스 지음, 하이네만판)

▲결혼에 대한 회고(Memorial to a Marriage)=주인공 고오든이 부인인 헨리·아담스에 대한 회고를 통해 미국 보스턴의 한 가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Lincoln Kirstein 지음,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판)

▲가짜? 사기의 기술(Fake? The Art of Deception)=회화, 드로잉, 골동품 등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상세히 소개하고 가짜를 구별해내는 방법을 쉬운 용어로 해설한 책. 편저자가 실제로 사기당한 경험도 소개, 미술품감정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영국박물관 출판국판)

▲KGB : 그 숨겨진 이야기(KGB : The Inside Story)=소련의 비밀정보국 KGB의 활동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책.(C. Andrew Oleg Gordievsky 지음, 호러 스타우턴판)

▲홀러가는 이야기처럼(As The Story Was Told)=세계적인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짧지만 독특한 뮤지컬작품 10개를 모은 책.(사무엘 베케트 지음, 칼더판)

▲부서진 줄레(The Broken Cord)=정신적

인 장애를 안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진실된 이야기. 젊은 인류학자인 주인공은 임신중 과도한 음주로 치명적인 알콜신드롬을 안고 태어난 아담을 양자로 맞아 부딪히는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M. 도리스 지음, 콜린스판)

▲이제는 말하리(A Time to Speak)=위대한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앤소니 퀘일의 자서전. 그는 이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앤소니 퀘일 지음, 배리 & 젠킨스판)

▲배우들의 안락의자(The Casting Couch)=세계영화의 메카 미국 할리우드에 모여 있는 영화제작사와 배우들의 세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 영화의 이면사를 흥미롭게 파헤쳤다.(Selwyn Ford 지음, 그래프톤북스판)

▲훌륭한 정원가꾸기(Guid Planting)=정원가꾸기의 실재를 컬러사진을 곁들여 상세하게 소개한 책. 단순한 정원 가꾸기 요령보다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차분히 설명한 책.(Rosemary Verey 지음, 프랑세스 린콜른판)

▲반역자의 가슴(My Traitor's Heart)=남아프리카를 직접 찾아가 폭력의 근원을 탐구한 한 젊은 리포터의 보고서. 폭력의 실체는 인종의 흑백에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 깊은 충격을 준다.(Rian Malan 지음, 보들리헤드판)

▲우리들 시대-한 세대의 초상(Our Age : Portrait of a Generation)=흔히 이야기하는 세대간의 격차는 단순한 세대간의 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며 세대간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좁은 간격인가를 설명한 책.(Noel Annan 지음, 바이덴펠트 & 니콜슨판)

▲카알 라거펠트-사진사(Karl Lagerfeld-Photographer)=풍속·인물사진작가 카알 라거펠트의 작품집. 루이 14세의 초상 등 아름답게 인쇄된 컬러, 흑백사진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베네딕토 타센 지음, 뮌헨판)

▲네온 성경(The Neon Bible)=1969년 31세의 나이로 자살한 작가가 영국 남부의 한 도시에 살고있는 소년의 삶을 진실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John Kennedy Toole 지음, 바이킹판)

▲미술비평(Noting If Not Critical)=홀베

인으로부터 앤디 워홀에 이르기까지 미술가들의 작품에 대한 의미있는 비평을 모은 책. 시각 예술에 관한 살아있는 권위자인 저자의 독보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Robert Hughes 지음, 콜린스 하빌판)

▲타락(Falling)=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명쾌한 문체와 지나친 감상을 억제하면서도 깔끔한 구성이 돋보인다.(C. Thubron 지음, 펑크판)

▲영국귀족의 몰락(The Decline and Fall of the British Aristocracy)=명쾌한 분석들과 편협되지 않고 천박하지 않은 태도로 영국귀족의 몰락과정을 서술한 책. 단순한 읽을거리로 쓴 것이 아니라 富와 권위의 측면에서 영국귀족들의 쇠퇴를 추적하고 있다.(D. Cannadine 지음, 예일판)

▲갯 쇼티(Get Shorty)=미국의 재능있는 범죄소설작가의 작품. 미국 도시생활의 단면을 부드러우면서도 시니컬한 문체로 그려내 영화화되기도 했다. 스크립트처럼 읽히는 이 작품 각각의 장이 독자적인 결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풍속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E. Leonard 지음, 바이킹판)

▲소유물(Possession)=사랑과 자아발견에 관한 내용을 포스트모더니즘 스타일의 문체로 그려낸 소설. 현대적인 구성이 뛰어나며 우리 시대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유명과 힘겹게 싸우는 주인공의 모습이 특징적이다.(A. Pyatt 지음, 사토윈드스판)

▲이탈리아 와인 지도와 포도원 여행가이드(Wine Atlas of Italy and Travellers Guide to Vineyards)=이탈리아 각지에서 나오는 와인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했으며 이탈리아전역에 퍼져있는 유명 포도주 생산 포도원에 대한 여행안내서.(B. Anderson 지음, 미첼비즐리판)

1990년도 미국의 출판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비즈니스관련 책자들이 주목을 끈 시기였다. 미국경제의 침체는 그동안 도외시했던 이 분야에 새로운 요구를 해왔으며 이같은 추세는 비즈니스 관련도서를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려놓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도 미국 비즈니스관련 베스트셀러는 두가지 중요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 하나는 지난날 미국의 명성을 날리게 했던 비즈니스관

런 성공담에 대한 주목이며 이는 자서전 형태로 서가를 장식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적인 대안제시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타개를 위해 경쟁력 회복을 일반대중들의 언어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이 효과를 가져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연구기관들은 모두 1991년도 미국 경제를 우울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위크誌 선정 '올해의 책'

▲문앞에 선 속물들 : RJR 나비스코의 몰락 (Barbarians at the Gate: The Fall of RJR Nabisco)=80년대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인 RJR 나비스코의 성공담과 재산운용전략을 소개한 책. 백만장자로서 화려한 각광을 받았던 나비스코의 다채롭고 드라마틱한 삶을 흥미 있게 추적했다.(Bryan Burrough & J.Helyar 지음, 하퍼 & 로절)

▲윈더 보이(Wonder boy)=美 윌스트리트에서 18세에 자수성가, 백만장자가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B.미코우가 어떻게 21세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나를 파헤친 책. (Daniel Akst 지음, 스크라이브너스판)

▲화려한 영광(In All His Glory: The Life of William S. Paley)=美 CBS 설립자인 윌리엄 S. 페일리의 삶을 그려낸 일대기. 창조의 천재며 탁월한 사업가로서의 페일리가 CBS를 세계적인 방송국으로 어떻게 키웠는가를 파헤쳤다.(Sally Bedell 지음, 시몬 & 슈스터

판)
▲法 그 자체 : 권력, 정치 그리고 IRS(A Law Unto Itself: Power, Politics and IRS)=미국 인터내셔널 리베뉴 서비스(IRS)사의 활약상을 그려낸 책. 저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그들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데 어떻게 IRS를 이용했는지도 파헤치고 있다.(David Burnham 지음, 랜덤하우스판)

▲日本人 상사를 모시고-마츠타 美國 현지 공장 속사정(Working for the Japanese: Inside Mazda's American Auto Plant)=일본 기업의 미국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87년 공장을 개설할 때 마츠타가 공약했던 고용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최근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분석해내고 있다. 생산라인에서 몰도 못마시게 된 미노동자는 불행하게 됐으며 마츠타가 내세웠던 일본과 미국문화를 조화시킨 제3의 문화는 여전히 환상으로 남아 있다고 저자들은 꼬집는다.(Suzy Fucin 지음, 프리프레스판)

▲사상최대의 은행강도 : S&L산업의 붕괴(The Greatest—Ever Bank Robbery: The Collapse of the Savings & Loan Industry)=미국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L 스캔들에 관한 책. S&L의 도산에 대해서 미국의 분석가들은 80년대부터 예상되어 왔던 사건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S&L사의 붕괴원인은 1950년대부터 마련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규제해제, 레이거노믹스, 미의회, 경기순환이 원인이라는 분석에 동의하

지 않고 은행가와 월스트리트街의 사람들이 S&L몰락의 원인제공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Martin Mayer 지음, 스크라이브너판)

▲기대할 수 없는 시대 : 1990년대의 미국의 경제정책(The Age of Diminished Expectations: U.S. Economic Policy in the 1990s)=미국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본 보고서. MIT대교수인 저자는 난해한 경제이론을 재미 있는 산문으로 옮겨놓고 있으며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쓰고 있다. 저자는 소득분배, 실업, 재정적자, 일본과의 경쟁 등과 같은 주제를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힘들이 무엇인가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다.(Paul Kragman 지음, MIT 프레스판)

▲국가경쟁력(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10년간 30명의 전문가가 매달려 세계 각 지역에서 성공한 산업분야와 국가의 자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 저자는 세계각국의 성공사례를 분석, 미국의 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기업이나 경영자들은 경쟁력갖추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Michael Porter 지음, 프리프레스판)

▲규모와 범위 : 산업자본주의 역동성(Scale and Scop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경영 역사학자 알프레드 찬들러의 최대의 역작. 저자는 미국, 영국, 독일의 2백대 기업들의 188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의 발전사를 분석했다. 국가와는 상관없이 성공적인 기업들은 경영, 생산공정, 그리고 공급테크닉 발전에

투자를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읽어내기에는 지루한 면도 없지 않으나 조심성 많은 저자는 현재의 추세에 대한 성급한 진단은 유보한 채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최근 논란이 무성한 미국경제의 앞날에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Alfred Chandler 지음, 하버드 프레스판)

▲非이성의 시대(The Age of Unreason)=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책. 저자는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킨 요소라고 지적하며 미국 경기가 소생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다가오는 변혁의 시대를 예측하게 하며 이에 대처하고 성공하게 하는 방안이 수록된 90년대의 가이드라인이다.(Charles Handy 지음, 하버드비즈니스 스쿨판)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출판물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국제저작권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책·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저작권회사를 만나보십시오!

바다저작권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습니다.







영국을
부끄럽게
한 여자

SCANDAL

게릴라 마케팅

전화 : 312-9135, 362-3138
팩시밀리 : 393-9786

121-010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 B/D 1702호